

하이델베르크大學의 教育環境과 特性

申 龍 澈
(慶熙大 史學科)

I. 머리말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그곳 교육의 특성에 관하여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의 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거듭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필자가 비록 1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그 대학에서 생활하고 학문을 계속했지만 아직도 미처 알지 못하는 구석이 많은 데다가 그 대학의 교육과 다른 독일 대학의 특성을 비교할 만한 識見을 갖지 못하였음은 물론, 특히 미국·영국·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만 필자의 평소의 학문 생활에서 좀 특이하다고 느끼는 것을 나름대로 서술해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유럽 여러 나라 대학의 특성일 수도 있고 더우기 독일 여러 대학의 교육적 특성과 類似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미리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다.

東·西獨을 합친 현재의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크대학은 독일의 서남부, 조용하고 아름다운 인구 10여 만의 유서 깊은 大學 都市인 하이델베르크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유럽 原始人類 중의 하나였던 하이델베르크原人(Homo Heidelbergensis)의 居住地였으며 소설 *Alt Heidelberg*를 통하여 “皇太子의 첫사랑”으로도 잘 알려진 도시이다.

學問과 浪漫 등 독일 대학의 상징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이 대학은 1386년에 設立된 明年이던 600週年을 맞아 지금 그 행사에 대한 준비로 바쁘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대학에 대해서 歷史와 環境, 制度, 教育內容, 教授와 學生活動 등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간에 확실한 구별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 다만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 보려고 한다.

II. 歷史와 環境

독일의 地方分權의 성향이 특히 강했던 中世 팔츠(Pfalz)의 選諸侯였던 루프레히트(Ruprecht) I 세는 교황 우르반(Urban) VI세의 특허를 받아 이 대학을 創設했다.

1386년 10월 18일 대학 설립 축하 예매를 거쳐 10월 19일 첫 講義를 시작했을 때의 교수 수는 단 한 명의 교수였던 M. Von Alna를 비롯하여 藝科 碩士 두 명을 합친 3명뿐이었는데 1386/7년의 통계로는 학생 수가 벌써 450명에 달하였다.

처음에는 神學部와 法學部에 이어 醫學部가 전부였는데 명년으로 설립 600주년을 맞는 이 대학은 지금 약 27,000여 명의 학생(그 중에는 10% 이상의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온 학생도

합)과 97개의 研究所(특히 암 연구소 Krebsforschungszentrum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와 27개의 병원을 갖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발전하였다.

학교의 공식 명칭은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Ruprecht-Karls(라틴어르 Ruperto Carola) Universität Heidelberg 라고 하는데 명승의 베카강 계곡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강변인 古都市에 캠퍼스대학과 新대학 및 철학·역사·신학·독문학·정치학·경제학·법학 등 人文社會系列의 학과가 집중되어 있고 신도시에 넓은 의과대학 및 병원들이 있으며 강 건너의 지역에는 自然科學系列과 특히 각종 스포츠를 위한 운동장·수영장 등의 시설이 있다. 그러나 종합캠퍼스가 없는 이 대학은 울타리가 없으니 大學이 都市이며 都市가 곧 大學이어서 시민들은 참으로 대학을 아끼고 깊은 관심을 갖는다. 언젠가 舊大學과 新大學 건물간의 비학 광장의 개수 공사 후 “왜 좀더 훌륭한 나무를 심지 않느냐?”는 시민의 항의에 “하이델베르크대학은 보리수(Rindbaum) 몇 그루로서가 아니라 전통으로서 유명하다”라고 한 총장의 답변에서 학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대학의 캠퍼스 건물(그 자체가 시 문화재 1호) 안에 있는 강당(Aula)의 정면 벽에는 아테네에서 학문의 神이 마차를 타고 독일로 들어 오는 것을 천연색으로 그렸고 천정에는 처음 생긴 신학부·법학부·의학부·철학부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다. 천정 및 벽의 들레에는 노벨상을 받은 7명의 학자들을 기록해 놓았다.

학생들이 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주변의 명승들인 베카강 계곡·피닉스 슈틀의 산과 그 산록에 있는 옛 城(그 안에는 22만 l의 맥주 통이 있으며 여름이면 城의 정원에서 “황태자의 첫사랑”을 공연도 한다), 강 건너의 철학자의 산책로(Philosophenweg) 등에 시간을 뱉기기도 한다.

특히 학생처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이 아름다운 베카강 계곡을 왕복하는 유람선의 짧은 여행에 초대한다. 더우기 그

건물이 예술적인 느낌을 주는 圖書館에는 中世에 쓰여진 중요한 문서의 筆寫本이 있고 구대학 건물 옆에는 말 안 듣는 학생을 잠시 유치했다는 학생감옥(Studentenkarzer)이 있는데 그곳 벽과 천정에는 낙서로 온통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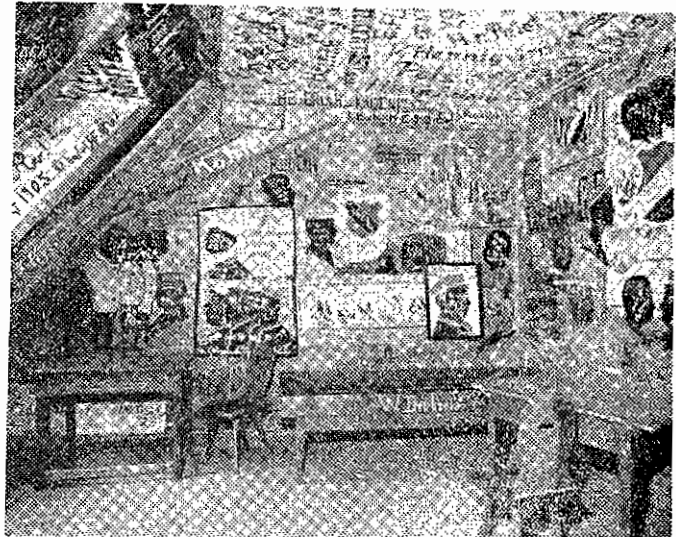
각 학부가 혼어져 있으니 우리의 캠퍼스와 같이 비교한다면 그 안에 각종 음식점이나 유명한 맥주집(특히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붉은 황소” Rother Ochsen) 등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과 도시의 축제가 따로 행해질 수 없으니 봄 사육제의 가장 행렬이나 가을의 포도주 축제는 대학과 도시가 함께 치르는 행사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과 도시, 도시와 대학의 일치된 진정한 호흡을 느낄 수 있다.

Ⅲ. 制度와 形式

대학의 입학을 위해 우리와 같은 入試制度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의 졸업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Abitur)의 성적을 지원 대학에 보내면 그에 따라서 합격·불합격이 결정된다. 의학과 등 특수한 과목을 제외하면 그의 경쟁률은 그리 치열하지는 않다. 입학한 후에 학과를 옮기는 문제도 가능하고 학교를 옮기는 것도 입학 때처럼 매학기 신청할 수 있다.

▼ 말 안 듣는 학생을 유치했다는 학생감옥의 벽과 천정은 낙서로 온통 가득차 있다



입학이 된 후에는 등록금이 사실상 거의 없다. 다만 의료보험료와 학생회비 등 약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독일 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도 참고되지만 부모가 일정한 정도 이하의 수입이던 獎學金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은 學業手冊(Studienbuch)인데 입학과 동시에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받으면 이것이 곧 재학중의 학적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길장에 성명과 학부 및 전공을 쓰고 안에 사진을 붙이면 매학기 등록 때에 우리 의미의 교무처에 가서 지난 학기에 이수한 과목을 쓰고 도장만 받으면 된다. 학위 시험 등을 볼 때 필요하면 복사해서 내면 되니 학생이 보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의미의 교무처에 학생의 성적이 보관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수는 어떻게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고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뒤에 언급하겠다.

또 그곳 대학에는 우리와 같은 의미의 학생처가 없다. 물론 학생 업무 담당부서(Studentenwerk)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식당의 운영, 학생 기숙사의 운영, 학생·교직원들의 육아 및 유치원 운영, 법률 상담, 분실물센터 운영, 직업 알선, 학생들의 역사 및 예술여행(주말), 장학금 등 학생을 위한 厚生福祉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외국학생부(Akademisches Auslandsamt)가 설치되어 있다. 기숙사 중에는 부부 기숙사가 따로 있고 특히 아이 하나와 둘 이상을 가진 부부 기숙사도 있어 인상적이다. 대학식당의 가격은 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매우 싸며 한화로 약 500원 정도이다.

매년 여름 1개월간 실시하는 외국인과 독일인을 위한 여름휴가 학습과정(Sommerferienkurs)은 독일어와 문학·역사·철학 등 독일 文化를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된다. 더우기 獨語敎育에 있어서 言語科大學의 通譯·翻譯 학부는 종합 대학에 속해 있는 것으로는 독일에서 유일한 것으로 학문적인 독어보다도 국제 관계의 밑거름으로 계속 증가하는 통역·번역사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매우 훌륭한 어학 연구 및 연수 기관이다.

독일의 대학은 모두가 국립이고 학교 시설은 물론 교직자의 봉급 등을 주 정부가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대학의 자율성은 바로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보겠다.

아직도 독일은 지방 분권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 주나 학교의 오랜 전통은 물론 주의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의 성격에 따라서 교육의 성격도 달라진다. 즉 구체적인 교육 정책은 거의 주 정부의 소관에 속한다.

외국 학생의 경우 入學許可證을 받으면 바로 독일 시험(문법·받아쓰기·작문)에 합격해야 전공 학습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합격이 되면 떨어진 성적의 수준에 따라서 어학반이 편성되어 어학 코스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대학의 공적인 기구로서 통역·번역학부에서 맡아서 하는 어학 과정이 있는 한편, '국제독어학습센터(Internationales Studienzentrum)'가 옛 城 隍의 전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명승에 위치하고 있다. 즉 어학 시험의 준비를 위한 기관으로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부담하고 독어를 배우는 곳이다.

그곳 대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빈거로운 形式이 없는 점이다. 입학식이나 졸업식, 학위 수여식 등의 우리에게 익숙한 행사가 일체 없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나 학생들이 갖는 대중성을 먼 행사가 거의 없고 현수막을 찾아 볼 수도 없다.

석사 및 박사학위 시험이 끝나고 기다리는 필자에게 학장은 "우리 학부의 이름으로 합격을 축하합니다. 옆 방의 비서실에서 학위증서를 찾아 가십시오."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각종 행사와 의식에 일찍부터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렇게 시시한가 하고 실망도 해 보았지만 다른 한편 바쁘고 혼잡한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간편하고 능률적이나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입학식이나 특히 졸업식을 위해서 공부한 것 같이 요란한 우리의 졸업식장에서 졸업생들의 태도가 일사불란하거나 엄숙하지 못하다고 통탄하는 상황이라면 이 행사의 의미는 이미 멀리 사라진 것이 아니겠는가?

學位證의 형식이나 내용 또한 특이하다. 위에



▲ 학과의 도서관에는 필요한 전문서적이 개가식으로 비치되어 있다

학부와 전공이 크게 쓰여지고 밑에는 수여자의 성명과 함께 학위논문 제목과 그의 성적 및 구술시험 성적(3차)의 평균 성적이 쓰여지고 대학 총장의 사인과 도장이 찍혀진다. 간단한 증이 한 장이니 표지라든지 다른 부작물이 전혀 없는 간소하고 실용적인 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학 입학 후의 탈락의 문제는 독일 대학의 경우 관이하다. 대학의 졸업은 일정한 연한을 마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계 없이 학위를 마쳐야 끝나는 제도로서 학위 논문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같이 입학해도 학위 논문을 끝내는 것은 학생의 능력과 사정에 의하여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학업 도중 학업이 너무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탈락자가 상당히 많고 탈락하는 학생 자신이나 사회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報道나 커다란 論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대로 대학의 운영에서부터 입학 및 학습과 졸업이나 교무 및 학생 업무 담당 등에 관한 여러 면에서 매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유급이나 학사경고, 제적 또는 학생지도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학업이나 생활 면에서 그로 해서 오는 혼란과 무질서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IV. 學科 및 敎科

위에서도 잠깐 살펴본듯이 모든 대학이 國立이지만 각 大學의 自律性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특히 학과의 獨立과 機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나의 학과(Seminar)이건, 학부(Fakultät)이건, 모두 단독 건물이나 최소한 한 층 내지 몇 층을 사용하고 있다. 학과의 중심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의 독자적인 圖書館으로서 학과를 위해 필요한

전문 서적이 학과 안에 개가식으로 비치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희귀한 사전이나 얻기 어려운 雜誌, 독일내 다른 대학 및 외국 대학의 도서 대여 등을 위해서만 중앙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 학과의 학생이 몇 년 동안 관심을 갖고 학과의 도서관을 출입하다 보면 장서의 위치나 책의 제목, 저자 등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는 데 이것은 학문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편 학과는 행정과 학문의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학과장에게는 행정·사무를 맡아 주는 비서가 있어서 중요한 편지 같은 것을 모두 대필해 주곤 한다. 학문적인 면에서는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으로서 학문에 뜻을 둔 조교(Assistant)가 있어 강의나 기타 학과의 학문 운영에 관해 교수를 도와 주고 있다. 여기에 다시 조교를 도와 주는 학생조수(Hilfskraft)가 있어서 도서의 정리, 도서관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이 경우 조교와 조수 등의 봉급은 모두 국가 공무원 규정에 의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학과에 따라서 사정이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학과장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교와 상의하여 계속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정리한다.

학과 안에 교수실, 강사실, 조교실, 비서실, 조수실 등이 있음은 물론이다. 학과의 강의는 전공에 관한 한 대부분 학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간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는 적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敎養科目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학과 학생을 위한 강의’가 있는데 神學·法學·音樂·言語學·體育 등 다양하며 필수라는 강제 규정은 없다.

특히 한 학기에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학기중 10여 차례에 걸쳐서 저명한 학자를 초빙해서 敎養學習을 실시한다. 예로서 未來(Zukunft)라는 주제에 대해 역사의 미래, 철학의 미래, 생물학의 미래, 예술의 미래 등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하이델베르크같이 작은 도시에서는 대학과 도시간의 친근감이 아주 커서 대학의 뉴스는 곧 그 시의 뉴스가 되고 그러한 세미나나 강연 등도 시민에게 곧 알려지고 호응을 받게 된다. 그리고 뒤에 이 주제들은 책으로 출판된다. 특히 대학 신문이 없기 때문에 대학의 뉴스를 대부분 일간지가 보도하고 있다. 일반 강의도 그렇듯이 이미 정년 퇴직을 했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 관심 있는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 주는 사람이 많다. 내가 아는 블뤼머(Blümer) 박사란 전 하이델베르크 시립 교향악단 지휘자는 70세에 가깝도록 中國學에 열성을 보여 모든 강의와 세미나에 빠짐 없이 참석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쓰겠다고 하여 그 집념이 대단함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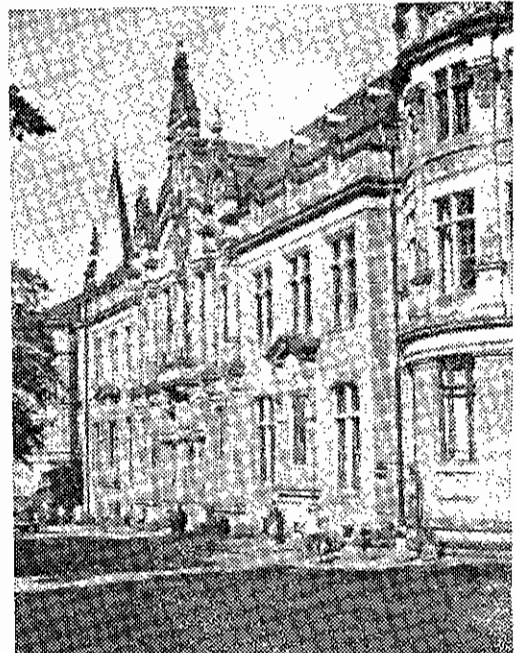
각 학과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학의 학습 내용을 대별하면 講義와 세미나, 本 세미나(Hauptseminar), 상급 세미나(Oberseminar), 예비 세미나(Proseminar)와 연습, 콜로키움(Kolloquium), 실습, 반복학습(Repetitorium), Tutor(Tutorium) 등이 있다.

강의는 한 교수가 한 학기에 한 강좌 이상을 맡지 않고 나머지는 Seminar, 연습 등을 맡게 된다. 세미나의 경우 교수는 학기초에 그 학기의 학습 목표와 내용 및 그에 관한 참고문헌을 소개하고 준비된 자료를 배분하며 각 주별로 학생이 맡아서 연구 발표할 주제와 일자 등을 정한다. 그에 따라서 주별로 세미나가 진행되며 발표와 토론 및 종합 평가 등으로 한 학기의 계획이 끝나면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에게서

‘세미나 증서(Seminar Schein)’를 받을 수 있다. 이 ‘세미나 증서’가 곧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성적이다. 거기에는 학생의 성명과 학기 및 발표한 논문의 주제와 성적 평가가 모두 기재된다. 이것은 곧 우리의 대학이 갖는 교부처의 학적 업무가 학과 내지 지도교수에게로 분산된 셈이다. 그러므로 학생은 ‘學業手冊’과 이 ‘세미나 증서’ 등을 갖고 있으면 필요한 때 그가 이수한 성적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卒業論文을 쓰려던 지금까지 이수한 과정의 내용을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그의 主題를 정하면 된다. 이 경우 지도교수는 여러 차례의 세미나, 연습 등의 과정에서 학생의 여러 측면의 능력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可·否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이 제도는 확실히 敎授와 학생의 빈번한 학문적인 접촉을 통한 信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理想的인 방법이다. 論文의 작성 과정에서 주제의 선정으로부터 참고문헌 및 그 내용과 각종의 사소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도교수와 상의를 해야 한다. 일단 완성된 논문은 소속 대학에 제출되고, 그

▼ 예술적 느낌을 주는 도서관에는 中世 때 쓰여진 문서의 筆窩本도 있다



것은 다시 지도교수 및 다른 심사교수들에게 배부된다. 논문의 심사가 합격으로 판정되면 대학은 교수·학생과 상의해서 일시를 정하고 시험(필기 및 구술)을 보게 된다. 이 시험이 끝나면 앞에서 본 대로 즉시 예비 학위증을 받게 되는데 뒤에 논문이 출판되어야 정식學位證書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과정이 끝나게 되므로 졸업식 같은 일률적이고 전체적인 행사가 일체 없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선·후배 의식이나 동창의 유대 같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학문을 통하여 지도교수나 그 밖의 동료, 선·후배의 관계는 계속되어진다. 특히 부러운 것은 모두가 國立大學이면서 一流, 二流 등의 대학별 격차가 없으므로 동창이나 대학을 통해 형성되는 違和感의 造成 같은 사회적 갈등은 크게 줄어들다는 점이다.

V. 教授와 學生

오랜 전통과 훌륭한 학풍을 가졌어도 대학의 중심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그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 대학의 正教授는 약 600여 명이고 명예 교수나 강사 등이 다시 그 정도쯤 될 것이다. 이때 정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의 조교수, 부교수, 교수와 같은 직급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교수가 되는 길은 역시 멀고 험해서 박사학위(Doktor)를 받고 나서 조교 생활 등으로 최소한 7~8년이 지난 뒤 그 동안 축적된 학문적 업적이 인정되면 교수 시험(Habilitation)을 거쳐서 교수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 경우 빈 자리에 응모하여 초빙(Ruf)을 받으면 그때서야 교수가 되며 이는 일생 동안의 職이 보장되는 국가 공무원이다. 따라서 교수의 타이틀이 중요하고 영광된 것이지 박사학위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

교수의 권위랄까 아니면 신뢰를 받는다는 점에서 독일은 아마도 세계에서 그리 흔하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다. 위에서도 본 대로 학과의 운영, 학생들의 학위 과정의 이수, 성적 등에 있어서 교수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제도의 한계에 부딪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는

학과에서 보낸 연환에서가 아니라 교수의 엄정한 평가에서만 가능하다. 생활 및 논문 작성 등으로 교수를 만나려면 학과에 명시된 週中の 일정한 면담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 너무 많은 학생이 밀리면 다음 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장학금 등을 위해서 써 주는 교수의 추천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장학금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이력서(학업 진도를 포함한)와 두 교수의 추천서에 의거하니 그 위력은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교수는 추천서에 “품행의 방정”이나 “타의 모범”과 같은 의미 없는 상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학생이 지도받는 전 교과목의 내용, 학문적 능력과 태도 등을 상세하게 거릿없이 쓴다. 예를 들어 “매우 부지런히, 조용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쯤은 그리 야박한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는 교수의 추천서를 신뢰할 수 있고, 신뢰를 받으니 교수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사회가 그저 한없이 부러울 뿐이다. 석사·박사학위의 논문을 ‘아르바이트(Arbeit)’라고 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논문의 지도교수를 석사·박사의 ‘아버지(Vater)’라고 부르는 것도 흥미롭다. 어쨌든 사회의 어떠한 타이틀보다도 영광된 이름이며, 중립적이고 자유롭게 학문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학생처가 없는 상황에서 교수의 학생지도(학문 이외의)는 필요하지 않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학생들과 그 분위기는 처음엔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해 보인다. 단결이나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갖는 커다란 집회나 행사가 없는 학생들은 그저 모두 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보이기 쉽다. 그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자율적으로 학습해 오던 대로 우리가 요즘 자주 거론하는 自律的인 학생들의 생활이 두드러진다. 거의 외적 규제가 없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기본적인 질서를 스스로 찾고 유지하는 것이다. 학습의 준비는 물론 학교의 전학·전과·포기 등이 그저 조용히 이루어지는 느낌이다.

한편 교도의 산업사회가 되면서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학업을 하나의 天職처럼 생각하여 생활의 끊임 없는 일부로서 생각하는 듯하다. 이곳 학생들의 커다란 특징이랄까 장점은 討論을 좋아하는 것이다. 학문이나 그 밖의 어떤 문제

에 대해서 보기에 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밤새도록 토론한다. 그러나 별다른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며 열띤 激論이면서도 결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단순한 결론보다는 토론의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풍토에서 오는 것 같다.

학습은 물론 여가 선용 등에 있어서도 겉치레보다는 소양과 취미대로 조용히 움직이니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게 되어 가는 것이다. 전체적인 행사나 의식이 없으면서도 자율적이고 소박하게 자신들을 위한 內實을 기하는 것이 그들이 생활이며 학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는 말

처음에 생각한 대로 대학의 특색을 찾는 데 그리 성공하지 못한 듯하다. 사실 어떤 면에서 獨逸 사람들의 성격처럼 그 특색이 교육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 즉 ‘화끈하게’ ‘끝내 준다’ ‘면학의 열기로 가득한’ ‘불철주야’ 등의 강렬한 어감을

풍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히’ 그 더한 분위기가 그곳의 특색이라고나 할까! 매우 치밀하고 잘 조직된 제도의 틀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힘차게 前進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벌써 오래전 훔볼트(Humboldt)나 야스퍼스(Jaspers) 등이 정의한 大學의 理念은 이미 역사 속으로 밀려 퇴색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학과 학문하는 이곳 Heidelberg 대학의 전통은 결코 그의 生動力을 잃지 않았다.

新大學(Neue Universität)의 출입문 위에 쓰여진 짧은 文句인 “生動하는 精神에로(DEM LEBENDIGEN GEIST)”는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서 그 스스로에 의해 動機가 誘發되어야 한다는 바로 이 自律性和 進取性에 대한 強調를 뜻하는 것이다.

明年으로 600주년(1386~1986)을 맞는 하이델베르크대학은 “傳統으로부터 未來에로”를 표방하면서 광범한 國際的 學術行事を 통하여 그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재확인하고 심오한 學問을 위한 創意的인 生動力을 더욱 強化시켜 나아갈 것이다. *